\* 2025 SS 컬렉션의 타이틀은 ‘엘프’이며, 그 시작은 조지 밀러 감독의 매드맥스 4번째 시리즈인 ‘분노의 도로’에서 시작합니다. 핵전쟁으로 멸망한 22세기, 풍요로운 자연이 가득한 ‘녹색의 땅’마저 사라지며 그 곳에 남아있는 이들이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 ‘엘프’가 아니었을까 하는 상상으로부터 컬렉션의 요소가 시작되었습니다. 풍요로운 녹색의 땅에서 태어나, 사막화된 바위 도시 ‘시타델’로 납치당한 주인공 ‘퓨리오사’가 독재자인 ‘임모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강인한 여전사가 되는 극명한 대비에서 영감을 받아, 복식사 속에 오랫동안 관념적으로 여성스럽다고 여겨진 아이템과 남성스럽다고 여겨진 아이템의 디테일의 병치를 통해 컬렉션을 풀어내고자 합니다. 이에 더해, 넓은 어깨를 보여주는 실루엣과 짧은 기장의 하의를 통한 역동적 실루엣을 창출하며 캐릭터의 강인함과 생존 본능을 함께 표현하기도 합니다. 특히, 퓨리오사와 함께 탈출을 시도하는 임모탄의 다섯 아내들의 의상에서 직접적으로 영감을 받아 부드러운 면과 린넨 같은 소재, 낡고 해진 느낌의 캔버스와 붕대의 옷에 드레이프와 디테일을 더해 이번 컬렉션에 주요한 디자인 요소로 가져갑니다.

\* The title of the 2025 SS collection is "Elf," which begins with "Road of Fury," the fourth series of George Miller's Mad Max. The elements of the collection began with the imagination of what it would look like if there were anyone left in the 22nd century, when the nuclear war destroyed even the rich nature-filled "land of green." Born in a rich green land and kidnapped by the desertified rock city of Citadel, Furiosa is inspired by the stark contrast of becoming a strong female warrior to escape from the dictator Immortan, the protagonist wants to unravel the collection through a combination of items used to be considered ideologically feminine and items used to be considered masculine in a fresh-strange harmony. In addition, it creates a dynamic silhouette through wide shoulders and short-length bottoms, expressing the strength and survival instinct of the character together. In particular, it is inspired directly by the costumes of Immortan's five wives who are trying to escape with Furiosa, adding drapes and details to the old and worn-down canvas and bandages as a key design element for the collection.